

의류

산업이슈

2019. 04. 24

업종 점검: 다시 봐도 좋을 성장주 pick

Comment

브랜드사 철저히 Bottom-up 접근 필요: 국내 의복 소매판매가 양호한 가운데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패션기업들의 전략 변화는 올해 이익률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고정비 부담이 큰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비효율 영업요인을 덜어내고, 온라인이나 홈세일 유통과 같은 비즈니스로의 확장으로 매출과 이익률을 높이는 브랜드들이 다수 있다. 내수 업황에 의존하기 보다 성장 사이클에 있는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패션기업 위주로 개별기업 플레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그런 관점에서 휠라코리아처럼 달리는 말이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원가 효율 개선되는 OEM사 주가 강세 전망: 미국을 비롯한 전방 수요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바이어들의 재고 소진이 충분히 이뤄진 이후로 OEM사들의 실적 기대치가 상향 조정 추세에 있다. 벤더 콘솔리데이션의 후속효과로 상위 벤더들로 오더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자체 생산성을 끌어 올려 매출과 이익 개선을 동시에 잡으려는 OEM사들이 보인다. 해외 바이어들의 수주 패턴이 소규모, 그리고 스피드를 강조하는 추세가 짙어지면서 원가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해지는 시기다. 원가 효율이 개선되면서도 제품 믹스 변화에 따라 ASP의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한세실업이나 화승엔터프라이즈에 더욱 관심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

Action

휠라코리아, 한세실업 선호 & 화승엔터프라이즈 바닥 잡기: 의류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단기 어닝모멘텀이 강세인 휠라코리아와 한세실업을 선호한다. 이들은 글로벌 Peer와 비교할 때 여전히 밸류에이션 과리를 매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바닥 관점에서 볼만한 기업으로는 화승엔터프라이즈도 긍정적이다. P(평균 수주단가)와 Q(수량)이 동시에 늘면서 신사업에 대한 실적 전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이나 F&F는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보여 중장기 관점에서의 접근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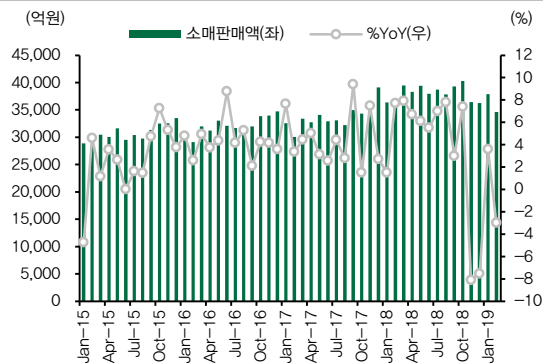
의류 업종 커버리지 기업 View

선호도	투자이견	목표주가	6개월 view
★	LF	BUY	33,000원
★★	한섬	BUY	49,000원
★★★	신세계인터내셔널	BUY	330,000원
★★★★	휠라코리아	BUY	93,000원
★	F&F	BUY	83,000원
★★	한세실업	BUY	37,000원
★	영원무역	BUY	52,000원
★	영원무역홀딩스	BUY	72,000원
★	화승엔터프라이즈	BUY	14,000원
	태평양물산	BUY	4,200원

브랜드사: 철저히 Bottom-up 관점에서 접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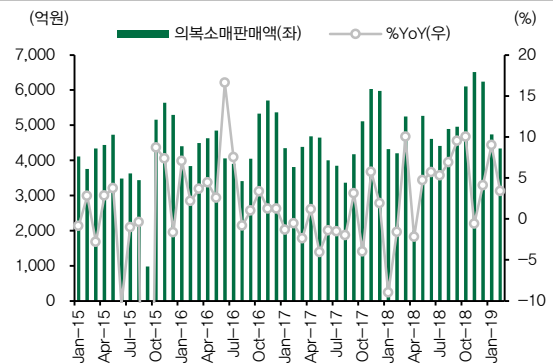
국내 소매판매가 2018년에 줄곧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작년 말, 2019년 들어서면서 전년도 높은 베이스 때문인지 소매판매액은 감소세를 띠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의복 카테고리 소매판매액은 최근까지도 증가 추세에 있어 패션 브랜드사들의 상반기 매출도 대체적으로는 양호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당연히 브랜드 경쟁력이 있는 패션 브랜드사 위주로 수요가 강세를 보였을 테고, 브랜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브랜드사들을 골라내는 포인트는 직전 분기의 매출 성장 추세와 투자자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브랜드 경쟁력 상승에 따른 실적 호조를 예상하는 기업으로 여전히 FILA 브랜드를 가진 휠라코리아를 꼽는다.

도표 1. 국내 월별 소매판매액 2019년 들어 저조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DB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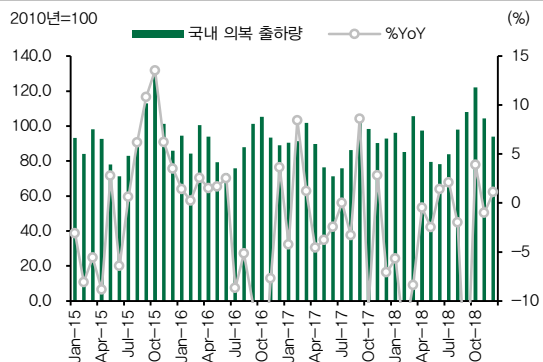
도표 2. 국내 의복 소매판매액은 견조하게 증가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DB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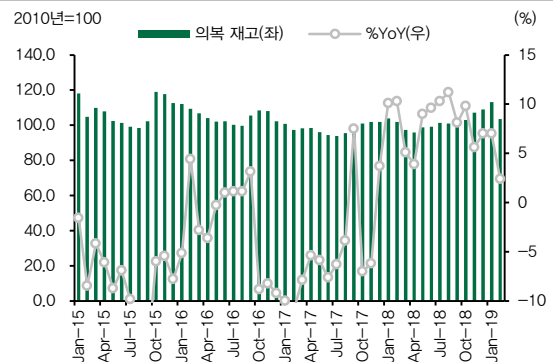
2018년 국내 의복 출하량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면서 동시에 재고도 YoY 10%대 증가율을 띠어 패션기업들이 공급을 늘리는데 반해 전방 소비가 예상대비 부진하진 않은가에 대해 우려 했으나 절대 재고액 수준 자체는 2010년과 2015년 대비 높은 상황은 아니기에 지나친 소비 부진 우려는 잠시 거둬 둘 줄을 듯 싶다.

도표 3. 국내 의복 출하량 미미하게 증가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DB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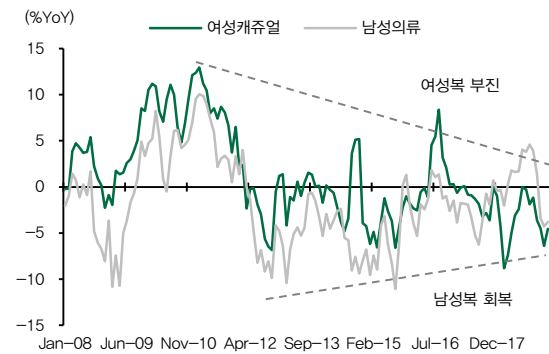
도표 4. 국내 의복 재고도 증가, 단 재고 수준은 높지 않음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DB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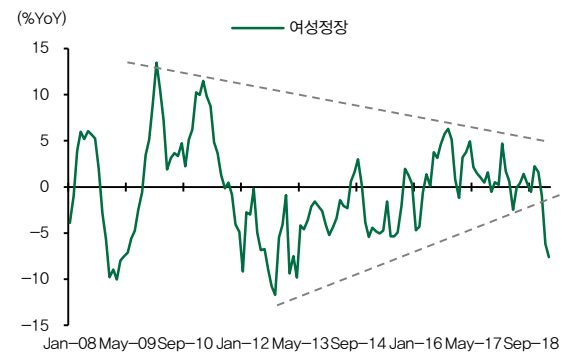
당연히 패션기업들의 전통 유통채널로 알려져 있는 백화점 내 의류 판매 실적은 부진하다. 여성정장류나 여성캐주얼 시장 모두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 백화점 내 매출이 감소세를 띠며 저조한 모습이고, 그나마 남성복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패션기업들의 실적 방향성을 따지기엔 부족하다. 아동/스포츠웨어 카테고리도 작년까지 회복 추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연초 들어 급격히 (-)성장을 띠는 달수가 늘어 이후의 추세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인다. 백화점은 명품 소비의 창구로서 역할이 더 커지는 추세이며, 아니면 비제도권에 있던 온라인 브랜드들의 백화점 임시매장 입점으로 고객 트래픽을 높이는 행태가 꾸준하다. 소비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소비자들 사이를 여는 곳은 일부로 정해져 있고, 이러한 수요의 쏠림 현상이 이슈 혹은 빅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양상이다.

도표 5. 백화점 여성복 매출 부진, 남성복 시장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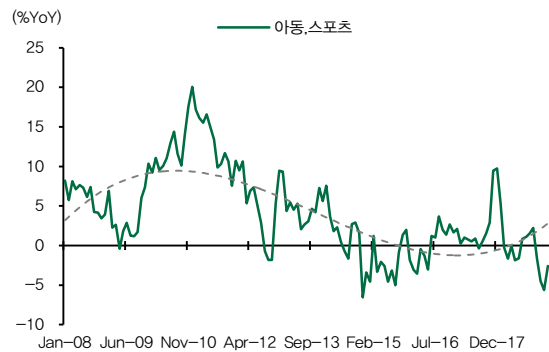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DB금융투자

도표 6. 백화점 여성정장류 매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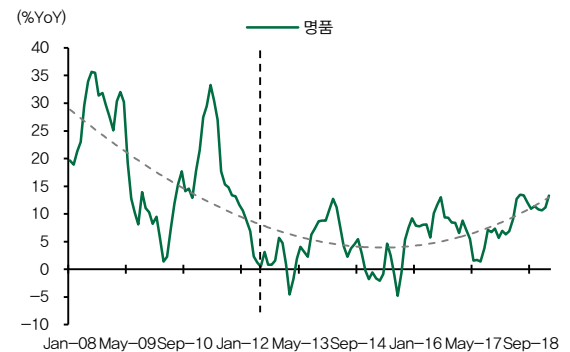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DB금융투자

도표 7. 백화점 아동/스포츠 매출 추세 확인 필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DB금융투자

도표 8. 백화점 명품 매출 성장률 강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DB금융투자

브랜드사들이 면세점이나 멀티 브랜드샵, 온라인몰 등으로 유통채널을 다변화해 기존의 백화점이나 가두점 채널에서의 판매 부진을 메우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결국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유통 구조도 바꾸는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유통 혁신에 발맞춰 내수 패션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최소화해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온라인이나 멀티샵으로의 확장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내수 패션사업의 성장 한계를 통감하는 기업들이 화장품이나 해외 라이선스 사업을 강화하면서 각자 모멘텀을 찾아나가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내수 패션기업들이 받던 시장 밸류에이션의 상한선이 높아지는 점도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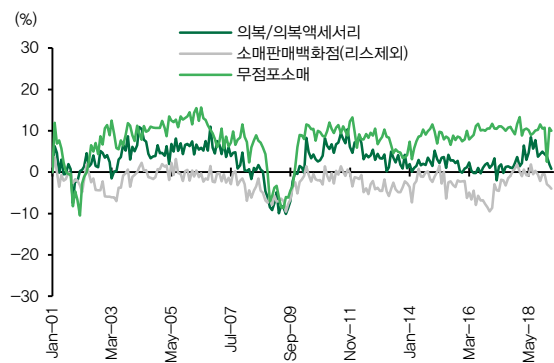
OEM기업: 적어도 2Q19까진 모멘텀 강세, 여전히 바닥

최근 한세실업이나 영원무역 등 의류OEM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 기대감 상승으로 주가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적어도 상반기 중으로는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선 미국 바이어들의 업황은 작년에 이어 현재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선 2016년부터 미국 의류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재고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다. 과거 2007~2009년 절대 재고액 자체가 높은 수준이었다면 이후 재고 규모를 과거 대비 낮게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재고 비율이 상승했다. 이후 패션기업들은 재고 소진에 집중했고, 지금도 신규 출점 대신 기존 점포 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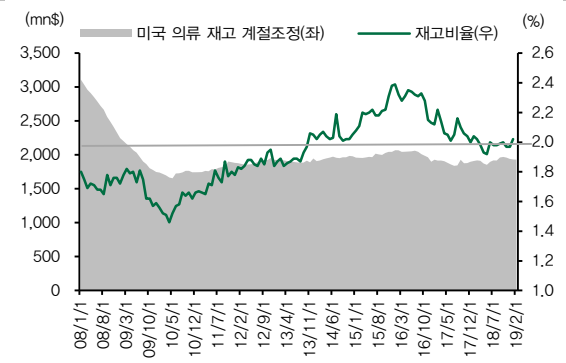
최근 의류OEM 기업들에게 의류 봉제품 수주가 늘어나는 기조를 띄는 한편 재고비율은 여전히 2016년 고점 대비 낮아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OEM 기업들에겐 긍정적이다. 미국 소매판매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의복/악세서리 카테고리의 성장은 2016년~현재까지 전체 소매판매 성장률을 웃돌거나 부합한 채로 호조를 띠고 있다.

도표 9. 미국 의복 소매판매와 무점포 소매 성장률 견조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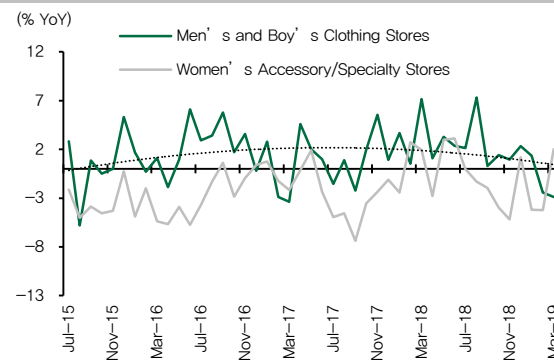
도표 10. 미국 의류 재고 비율 2015~2016년 대비 양호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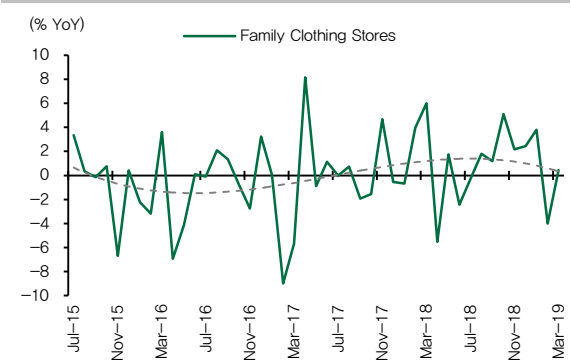
미국 의류 매장별 POS(카드단말기) 매출 추세를 살펴보면 패밀리캐주얼 매장 실적이 작년부터 상승 곡선에 있었고, 2019년 들어서면서 다시 하향 추세를 띄는 듯 보이지만 작년 (+)성장률을 감안하면 아직 추세를 속단하기 어려운 구간이라고 판단한다. 캐주얼 기업들이 비효율 영업 요인을 제거하고,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체질 개선을 그간 행해왔기 때문에 2015~2016년과 같은 불황이 재현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 남성복 매장의 POS 매출 성장세가 강하고, 여성복 매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듯 보이는데 여성복 시장이 캐주얼 시장으로 대체됨에 따른 구조적 영향이 존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2015~2016년과 비교할 때 매출 감소폭이 크진 않은 것으로 보아 여성복 바이어들이 체감하는 소비 업황은 그리 나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도표 11. 미국 여성복매장 POS매출 저조, 남성복 상대적 강세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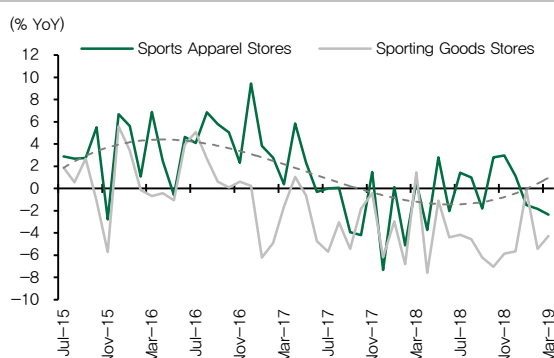
도표 12. 미국 패밀리캐주얼매장 POS 매출 추세 속단 어려워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스포츠의류 매장의 POS 매출은 전년대비 소폭이나마 회복되는 구간에 있어 아직까진 추세선이 우상향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2015~2016년과 비교할 때 스포츠웨어 시장이 호황기에 있다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며, 하반기 실수요는 다시 체크가 필요해 보인다. 신발 매장의 실적은 전년도 높았던 성장에 베이스 부담인지 성장률이 둔화되는 움직임이 있는데 여전히 의류에 비하면 성장률은 높은 편으로 신발 OEM사, 예를 들면 화승엔터프라이즈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도표 13. 미국 스포츠웨어매장 POS 매출 성장세, 하반기 체크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도표 14. 미국 신발매장 POS매출 성장 둔화, But 높은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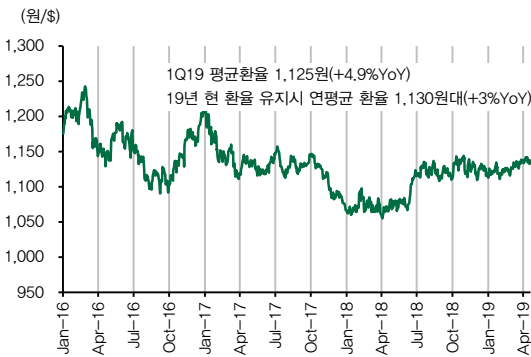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원/달러 평균환율도 OEM사에게 우호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1Q19에도 달러기준 OEM 매출액 대비 원화 환산 실적이 5%YoY 높아 보이는 것은 물론, 현 환율 추세를 유지만 해준다면 연간으로 OEM 기업들의 원화 실적은 달러 매출보다 약 3%YoY 높아 보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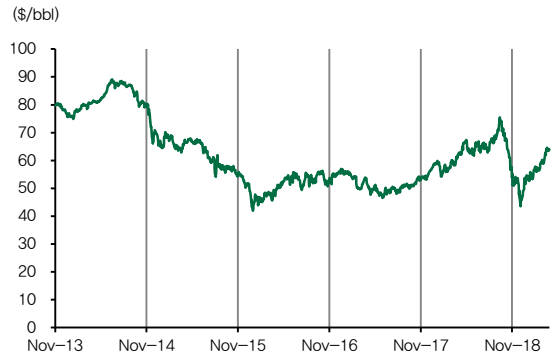
이외 유가도 배럴당 60~70\$에서 등락을 거듭한다는 전제라면 작년 대비 비용 부담이 커지지 않을 수 있어 각종 섬유 가격 안정세에 따른 비용 안정화와 함께 OEM사들의 이익률 개선에 일부 일조할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로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상승할 것이란 시장 전망이 우세한데 유가 급등시 화학 섬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원부자재 가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나 고기능성 소재를 다루는 OEM사 일수록 가격 전가가 유연해 관련 OEM사들 위주로 선별해 트레이딩 하는 전략도 방법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원무역과 같은 케이스다.

도표 15. OEM사에 원/달러 평균환율 현 추세 우호적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도표 16. 유가 등락: 원부자재와 운송비 증감에 일부 영향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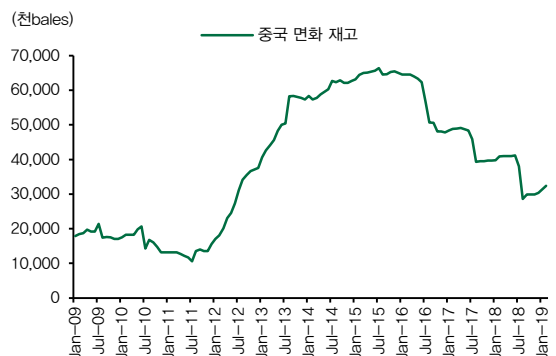
또한 작년 내내 면화가격의 급등락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올해는 면화가격이 작년보다 안정세에 있어 한세실업이나 태평양물산과 같은 캐주얼 OEM사들의 본업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표 17. 면화가격 2018년 대비 2019년 안정세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도표 18. 중국 면화 재고 안정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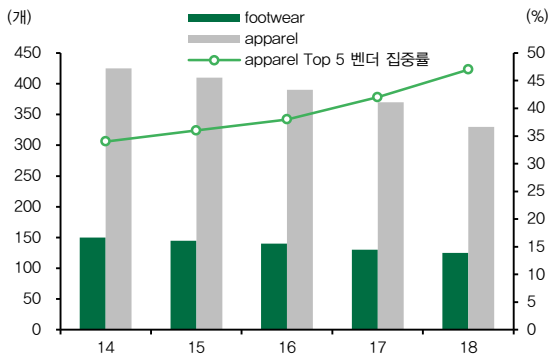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바이어들의 재고 소진 상황과 리테일 소비 지표, 환율이나 유가 변동과 같은 변수 이외에 OEM사들을 바라보는 긍정적 포인트는 바로 OEM 벤더 콘솔레이데이션(Consolidation)의 후속 효과이다. 급변하는 패션 트렌드 영향으로 제품 리드타임을 더욱 짧아지고 있고, 바이어들은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오더 비중을 늘리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럴수록 바이어와 OEM사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빅벤더 위주의 오더 계획을 갖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상위 벤더의 집중률을 높여 생산효율을 높이고, 전략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에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같은 해외 바이어들의 해외 생산 소싱처도 지난 5년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고, 이제는 벤더 감소세가 완화되는 국면에 있어 점차 벤더들이 느끼는 수주 압박은 개선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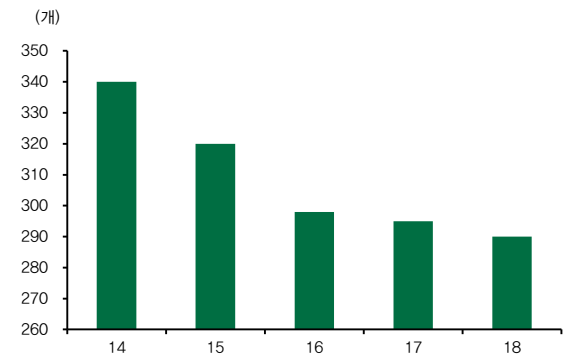
비단 아디다스나 나이키 만의 모습은 아닌 듯 보이며, 에컨데 작년엔 매물로 나온 소규모 봉제 공장의 인수 기회가 다수 있었고, 이를 활용해 올해 수주 증가에 대응하는 OEM사가 대표적으로 한세실업 등이 있다. 선택 받는 생산 벤더들은 과거보다 타이트해진 오더 사이클에 맞춰야 하는 부담은 있었지만 빅바이어들의 수주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성장 모멘텀을 당분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도표 19. 나이키 생산 벤더수 감소 추세



자료: NIKE, DB금융투자

도표 20. 아디다스 생산 벤더수 감소 추세



자료: Adidas, DB금융투자

단기 관점에서 휠라코리아, 한세실업 선호! 하반기엔 화승엔터프라이즈!

의류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단기 어닝모멘텀 강세로 주가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 몇몇 기업 위주의 선별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한다. 브랜드사 중에서는 미국법인과 로열티 수익 성장으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는 구간에 있는 휠라코리아를 선호하며, OEM사 중에서는 상반기 수주 상황이 타사대비 공격적이면서도 영업비용 감소가 가능해 보이는 한세실업을 선호한다. 글로벌 Peer와 비교할 때 여전히 밸류에이션 과리를 매꿀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도 보여져 매력적이다. 하반기 유망종목으로서 바닥 관점에서 볼만한 기업으로는 화승엔터프라이즈도 긍정적이다. P(평균 수주단가)와 Q(수주량)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신사업에 대한 실적 전망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매력적이다.

신세계인터내셔널(비디비치 면세점 성장 강세)이나 F&F(MLB 중국사업 기대감)는 중국발 모멘텀을 선반영해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높는데 현 시점에선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보일 수 있어 여유를 갖고 중장기 관점에서의 접근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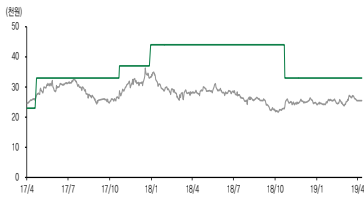
도표 21. 의류업종 커버리지 기업 목표주가 및 추정치

(단위: 원, 십억원, %, 배)

		LF	한섬	신세계인터 내셔널	휠라코리아	F&F	한세실업	영원무역	영원무역홀딩스	화승엔터프라이즈	태평양물산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목표주가		33,000	49,000	330,000	93,000	83,000	37,000	52,000	72,000	14,000	4,200
현주가		25,500	42,850	310,500	76,600	82,500	27,600	37,450	64,600	13,650	2,895
시가총액		746	1,055	2,217	4,781	1,271	1,104	1,660	881	826	145
매출액	18	1,707	1,299	1,263	2,955	669	1,713	2,101	2,519	879	972
	19E	1,829	1,411	1,440	3,333	770	1,851	2,217	2,677	1,110	1,012
	20E	1,914	1,507	1,657	3,730	876	1,967	2,321	2,942	1,410	1,058
영업이익률	18	7.0	7.1	4.4	12.1	13.7	2.3	9.6	10.1	4.6	3.4
	19E	7.6	7.3	6.2	13.9	13.9	4.8	9.7	10.0	5.5	3.8
	20E	7.8	7.7	8.4	14.5	14.7	5.1	10.5	10.5	6.7	4.0
EPS증가율	18	13.0	38.2	84.5	128.0	45.8	적전	4.0	22.8	-62.5	21.5
	19E	11.7	14.0	64.4	78.6	-25.1	흑전	47.7	18.0	137.7	27.0
	20E	8.7	14.6	57.5	20.9	22.4	11.3	12.5	18.9	57.8	17.2
P/E	18	8.7	12.0	31.3	22.8	5.7	NA	15.0	9.7	37.8	10.1
	19E	7.7	12.4	30.4	17.6	15.5	15.6	9.7	8.5	20.4	9.0
	20E	7.0	10.9	19.3	14.6	12.7	14.0	8.5	7.1	12.9	7.7
P/B	18	0.6	0.9	2.6	3.3	1.6	1.9	1.2	0.9	2.2	0.9
	19E	0.6	1.0	3.7	3.6	2.7	2.4	1.1	0.8	2.5	0.9
	20E	0.6	0.9	3.1	2.9	2.3	2.1	1.0	0.7	2.1	0.8
EV/EBITDA	18	2.9	7.4	18.0	10.9	4.7	14.4	6.2	4.6	8.8	7.7
	19E	2.6	7.9	20.2	10.7	9.1	10.5	4.0	4.2	8.2	7.4
	20E	2.2	7.0	14.3	9.0	7.2	8.6	3.3	3.7	6.2	6.6
ROE	18	7.7	7.8	8.6	16.0	31.6	-10.5	11.5	9.5	6.2	9.0
	19E	8.1	8.2	12.9	22.9	19.0	16.2	11.8	10.2	13.1	10.3
	20E	8.3	8.7	17.6	22.2	19.5	16.0	12.1	11.0	17.8	10.9

자료: DB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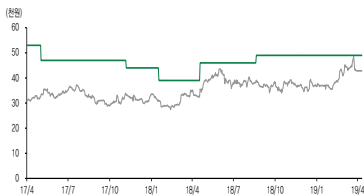
LF 현주가 및 목표주가 차트



최근 2년간 투자이전 및 목표주가 변경

일자	투자이전	목표주가	과리율(%)		일자	투자이전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16/07/22	Hold	23,000	-4.4	13.5					
17/05/15	Buy	33,000	-13.1	-1.4					
17/11/14	Buy	37,000	-15.2	-1.9					
18/01/22	Buy	44,000	-37.6	-20.7					
18/11/14	Buy	33,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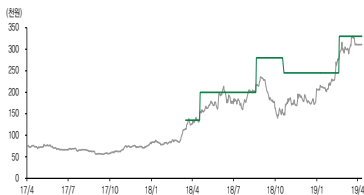
한성 현주가 및 목표주가 차트



최근 2년간 투자이전 및 목표주가 변경

일자	투자이전	목표주가	과리율(%)		일자	투자이전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16/06/22	Buy	53,000	-33.2	-20.1					
17/05/25	Buy	47,000	-30.0	-20.9					
17/11/29	Buy	44,000	-27.8	-23.6					
18/02/09	Buy	39,000	-20.2	-9.7					
18/05/11	Buy	46,000	-15.4	-5.5					
18/09/12	Buy	49,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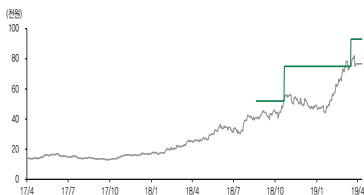
신세계인터내셔널 현주가 및 목표주가 차트



최근 2년간 투자이전 및 목표주가 변경

일자	투자이전	목표주가	과리율(%)		일자	투자이전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18/04/09	Buy	135,000	-2.8	10.7					
18/05/11	Buy	200,000	-9.1	8.5					
18/09/12	Buy	280,000	-33.7	-15.9					
18/11/12	Buy	245,000	-19.6	13.3					
19/03/14	Buy	330,000	-	-					

힐라코리아 현주가 및 목표주가 차트



최근 2년간 투자이전 및 목표주가 변경

일자	투자이전	목표주가	과리율(%)		일자	투자이전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18/09/12	Buy	52,000	-15.8	1.3					
18/11/13	Buy	75,000	-25.9	4.5					
19/04/09	Buy	93,000	-	-					

F&F 현주가 및 목표주가 차트



최근 2년간 투자이전 및 목표주가 변경

일자	투자이전	목표주가	과리율(%)		일자	투자이전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18/09/12	Buy	120,000	-40.3	-20.2					
18/11/15	Buy	90,000	-49.7	-34.3					
19/01/17	Buy	76,000	-46.3	-43.2					
19/01/30	Buy	66,000	-10.8	4.4					
19/03/05	Buy	83,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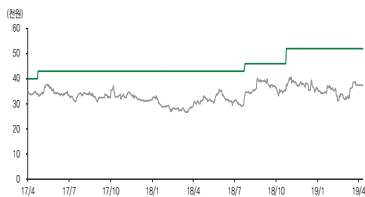
한세실업 현주가 및 목표주가 차트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17/04/21	Buy	33,000	-18.5	-17.1	19/04/01	Buy	37,000	-	-
17/05/16	Buy	31,000	-16.6	-6.6					
17/11/15	Buy	33,000	-24.8	-10.3					
18/05/16	Hold	23,000	-29.6	-22.4					
18/07/12	Buy	19,000	-13.8	-7.4					
18/08/16	Buy	22,000	-11.3	8.6					
19/02/15	Buy	29,000	-12.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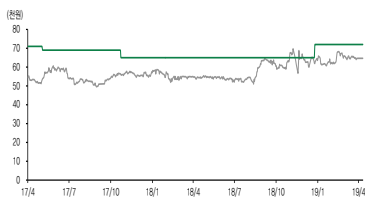
영원무역 현주가 및 목표주가 차트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17/01/13	Buy	40,000	-21.3	-11.5					
17/05/16	Buy	43,000	-25.2	-12.3					
18/05/16	1년경과		-26.2	-16.6					
18/08/16	Buy	46,000	-20.8	-12.5					
18/11/15	Buy	52,000	-	-					

영원무역홀딩스 현주가 및 목표주가 차트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16/11/17	Buy	71,000	-21.7	-13.5					
17/05/26	Buy	69,000	-20.5	-12.0					
17/11/15	Buy	65,000	-13.9	-0.3					
18/11/15	1년경과		-1.6	7.2					
19/01/17	Buy	72,000	-	-					

화승엔터프라이즈 현주가 및 목표주가 차트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17/06/01	Buy	25,000	-27.8	-23.0					
17/07/05	Buy	23,000	-31.3	-25.0					
17/08/14	Buy	21,000	-18.9	3.8					
17/11/15	Buy	30,000	-23.1	-7.2					
18/07/12	Buy	16,000	-22.8	-5.6					
18/12/05	Buy	14,000	-	-					

태평양물산 현주가 및 목표주가 차트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17/06/01	Buy	6,000	-39.6	-23.8					
18/05/16	Buy	5,000	-40.1	-37.4					
18/07/03	Buy	4,200	-	-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주식수 변동 시 목표주가와 괴리율은 수정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1년간 투자이익 비율 (2019-01-07 기준) - 매수(79.0%) 중립(21.0%) 매도(0.0%)

■ 기업 투자이익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Buy:**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Hold:**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perform:** 초과 상승률 -10%p 미만

■ 업종 투자이익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Ov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Neutral:**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미만



본 사

본사 영업부 02) 369-3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DB금융투자빌딩 1~2층)

대전 · 충청지역

대전 042) 522-660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59 (고운손빌딩 2층)
 천안 041) 569-7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 (에이엠타워 2층)
 청주 043) 253-9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205번길 57 (WM타워 5층)

서울지역

강남금융센터 02) 3474-9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1 (삼원빌딩 3층)
 DB금융센터 02) 3011-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빌딩 3층)
 청담금융센터 02) 514-14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4 (원일빌딩 2층)
 목동금융센터 02) 2636-6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기독교방송 1층)
 압구정금융센터 02) 3445-88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76길 14 (증권빌딩 2층)
 을지로금융센터 02) 753-900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3층)
 잠실 02) 419-62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 다길 42 (루터회관 1층)

부산 · 경상지역

남포 051) 242-6000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90 (남포메디칼센터 2층)
 부산 051) 515-6200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353 (BNK부산은행 2층)
 센텀 051) 741-72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 (대우트림스퀘어 2층)
 양산 055) 388-0900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역6길 9 (BYC빌딩 204호)
 창원 055) 600-55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 (더시티세븐 3층)
 대구금융센터 053) 476-4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99 (호연빌딩 2층)
 포항 054) 275-31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1 (신아빌딩 1층)

경기지역

분당 031) 718-7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2 (보명프라자 4층)
 인천 032) 518-343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3 (메디캐슬빌딩 2층)
 평촌 031) 382-62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4 (하나은행빌딩 4층)
 진접 031) 572-402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정현천로 20 (광장빌딩 3층)
 화성향남 031) 366-09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216 (중앙빌딩 3층)

광주 · 전라지역

광주 062) 655-340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64 (삼환빌딩 4층)
 전주 063) 229-221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40 (효자메디컬프라자 2층)

강원지역

강릉 033) 641-8629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845 (성호빌딩 3층)
 원주 033) 765-9400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06 (리더스타워 3층)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